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김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행정학 전공

nkotb517@aks.ac.kr

I. 연구에 들어가며

II.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설계

IV.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V. 전통의 현대화 논의

VI. 분석을 마치며

I. 연구에 들어가며

1. 연구배경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문제가 유발되고 비판적 담론이 생산될수록 전통은 오래된 과거로서 사회공동체가 공유해야 하는 가치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개인의 공동체 이탈이나 부적응과 같은 현대사회의 병폐가 심화될수록 사회구성원을 결속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의 발견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최근에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의 관점에서 전통에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전통은 지난 시대에서부터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등의 양식¹⁾ 또는 사회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고방식, 행동방식, 관행을 뜻한다.²⁾ 또한 전통이란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으며³⁾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풍습 중 현재에 수용하고자 합의된 가치라고도 한다. 때문에 전통을 시간의 차원에서 규정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⁴⁾이라고 정의하는 등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통의 현재적 의미에 주목해 ‘전통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전통의 현대화는 전통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활용 성과와 같은 실용적인 측면, 그리고 전통적 요소를 발굴하거나 전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에서 전통의 현대화는 전통적 요소가 시류에 부합하게 쓰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후자에서는 전통이 구현되고 있는 양상 그 자체가 곧 전통의 현대화를 가리키며, 이 경우 현대화를 위해서는 전통 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⁵⁾ 더 나아가 우리 현실과 유관하며 우리의 문제를 처방하는 데 적실한 지식 생산을 위해 서구이론의 토착화

1) 『표준국어대사전』(검색어: 전통)

2) Merriam-Webster(검색어: tradition)

3)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Tradition, Genuine or Spuriou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97(385)(1984), pp. 273-290.

4) Eric J. Hobsbawm,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Univ. Press, 1992), p. 21.

5) 이충양, 「1980년대 중국에서의 전통문화와 현대화 논쟁」, 『중어중문학』 제29권 (2001), 11쪽.

나 한국화를 논하는 데 한국성을 반영하는 용어로서 전통 개념을 차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통은 현재 인간의 개인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공유하는 전통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현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2. 연구질문 및 연구범위

전통이라는 용어를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하며 전통과 현대를 상호 배타적인 상태로 상정하는 접근을 두고 여러 차례 비판이 제기되었다.⁶⁾ 이와 같은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화 문제에 관해 철학적·역사적·문화학적 연구 외에 실증적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안된 바 있다.⁷⁾ 이에 '전통은 어떻게 현대화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통이 현대화되는 맥락을 포착하고 현대화의 근거를 탐색함으로써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 환경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사회적 단위인 가문으로서의 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이때 집은 한 가족집단의 상징이자 그들의 존재 근거가 된다.⁸⁾ 특히 전통가문을 대표하는 종가(宗家)⁹⁾는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을 적실하게 반영하며, 종가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6) Eisenstadt(1973); Rudolph & Rudolph(1967); Singer(1972); Tipps(1973); Handler,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앞의 논문, p. 273. 서구의 지적 계보에서도 사회변동을 '전통의 쇠퇴'에서 '현대의 부상'으로의 이행(transition)이라고 인식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배타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왔다. Richard Bendix,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9(3)(1967), p. 308, p. 324.

7) 라영거(1989); 이충양, 앞의 논문.

8) 강영환, 『집의 사회사』(웅진출판, 1992), 291쪽. 유교적 가문은 생업으로서의 가업(家業)과 가산(家産), 행위규범으로서의 가례(家禮), 종교로서의 가통(家統)과 가묘(家廟), 역사로서의 가보(家譜)와 가승(家乘)을 포괄하는 전체적이고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가문(家門), 가훈(家訓), 가통(家統)의 세부규범이 전체 질서를 위해 봉사하는 등 여러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형성된다. 최봉영, 『한국인의 가(家)의 현실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1992); 이희봉, 「상류 전통주거 강릉 선교장의 해석」, 『건축역사연구』 제8권 제4호(1999), 41쪽.

9) 종가는 말이로만 이어져온 큰집을 뜻하며, 누구나 알 만한 훌륭한 인물(顯祖), 이 인물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사당을 지키는 고택 그리고 사당을 지키는 직계후손과 지손들로 구성된 문중이 있어야 성립된다(이성원,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푸른역사, 2008, 23쪽).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파(派)를 대표하는 가문으로서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이 이루어지며, 종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집을 뜻한다.

문중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가문을 통해 전통문화의 한 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화의 단서이다.

따라서 첫째, 전통가문은 시간이 담긴 공간을 토대로 구성된다는 생각에 기초해 최소 300년 이상이 된 종가라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둘째, 전통가옥은 한국의 오래된 생활양식과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며 이 중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옥이 한국의 전통을 분석하는 데 적실하다고 판단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종택의 가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¹⁰⁾ 셋째, 현대화의 맥락을 포착하는 데 외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해 일반인들에게 체험활동 장소로 개방되어 있는 전통가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가옥(house)이 아니라 가문(family)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그 집의 전통성을 가장 잘 인식하며 가풍이 깊숙이 체화된 후손들의 구술을 분석하여 전통의 현대화 맥락을 살펴보았다.

II. 선행연구 분석

1. 전통의 개념

전통을 의미하는 tradition은 라틴어 traditio에서 유래하고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어 pradosis까지 추적되는데, 모두 ‘넘겨주다(handling over)’라는 뜻을 지닌다.¹¹⁾ 또한 온고지신(溫故知新), 탁고개제(託古改制), 법고창신(法古創新) 등의 용어는 전통이 결코 현대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님을 반영한다.¹²⁾ 사실상 전통은 관습과 신념의 계승¹³⁾ 또는 문화적 특성의 내적 전승으로서 시간적 연속성을 지니므로 전통과 현대를

10) 문화재로 지정된 635개의 고택 중 45%에 해당하는 286개 고택이 경상북도에 분포한다(2011년 기준). 한편 강릉 선교장은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안동 농암종택의 애일당(愛日堂)과 긍구당(肯構堂)은 각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호와 제34호, 임청각은 보물 182호로 지정되었고, 학봉종택의 운장각에는 일괄유물로 보물 제905호, 보물 제906호가 소장되어 있다.

11) Valliere(1987); 김중서, 「전통사상의 개념」, 김중서 외,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쪽.

12) 전병재, 「한국사회에서의 전통과 현대」, 『한국사회』 제1권(1998), 9-25쪽.

13)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앞의 논문, p. 273.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전통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의 해석과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대적인 유산이므로 현재와 과거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양자 간의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정신적 조건으로서 전통이 논의된다.¹⁴⁾ 그러므로 '전통의 현대화'는 결국 현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며, 궁극적으로 전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가다머(H.-G. Gadamer)에 따르면 전통은 인간의 역사적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용으로, 각각의 인간과 민족의 역사적 현재는 그들이 뿌리박고 있는 문화의 역사적 힘에 의해 지탱된다.¹⁵⁾ 이 관점에서 인간사회는 전통의 기반 위에서 유지되며, 전통은 인간의 사회적 삶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에 해당된다. 한편 전통은 단순히 변할 수 없는 과거를 기념하거나 현상을 옹호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창조 욕망 때문에 개발되는 것으로¹⁶⁾, 전통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모습 그대로인 것과 현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¹⁷⁾ 즉, 전통은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져온 것과 현재 시점에서 상징적으로 구성된 것이 혼합되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되므로¹⁸⁾ 현대인들이 과거의 생산물 위에서 발전시키는 관점, 현대적 기능이라는 기준에 따른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곧 '전통의 현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필요에 의해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나 과거에 호소하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관점²⁰⁾은 전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14) Gadamer(1990);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휴머니스트, 2005), 88쪽.

15) 가다 겐 · 노에 게이이치 · 무라타 준이치 · 와시다 기요카즈 저,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도서출판비, 2011), 326쪽.

16) Ulrich Beck & Anthony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 Polit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5, p. 104.

17) Rubin(1975);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앞의 논문; 윤현호,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으로 인한 양동마을 전통의 재구성」, 『관광연구』 29권 2호(2014), 2쪽.

18) 윤현호, 위의 논문, 2쪽, 4쪽

19) 류정아,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성'의 의미: 남프랑스 한 마을의 전통축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8권(1995), 79-99쪽.

20) J. G. Lutz & S. El-Shakhs, *Tradition and Modernity: The Role of Traditionalism in the Modernization Process*(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p. 2.

일례로 현재에 존재하는 전통은 선택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²¹⁾, 이와 유사하게 과거와 연관된 사건이나 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유형화와 의식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이 역사적 사실로 자리 잡는 사례를 추적하기도 한다.²²⁾ 이때 전통은 과거에 신성함(divine presence)을 부여하기 때문에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²³⁾ 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전통의 현대화 사례

전통의 현대화는 다양한 사례로 가시화된다. 전통공예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의 지속가능성은 특정 기능의 전승을 훨씬 넘는 복합적인 문화의 재생산 과정이다.²⁴⁾ 또한 전통마을 주민들의 관광 대응행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민들이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가운데 전통요소를 선별하여 전통의 명맥을 보존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포함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유교식 제사 전승방식에 대한 논의에서도 제례의 규모와 횟수의 변화과정을 두고 생활의 간편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禮)에 함축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되살리면서 정체성을 지속해가는 이성적인 변화라고 해석한다. 즉 외적으로 가변적인 면을 드러내지만 본질은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의 지속과 변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력이 확보되는 것이다.²⁶⁾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21)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앞의 논문.

22) Eric J. Hobsbawm, 앞의 책. 예컨대 한 사회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취한 집단은 그들의 제한된 기억을 옛 기원에 소급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이때 기원은 현실 체험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도상, 묘비, 사원, 기념비 또는 제의와 축제 등의 매체가 동원되며, 그 기원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나 집단 또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23) Ulrich Beck & Anthony Giddens, 앞의 책, p. 104.

24) 문옥표, 「문화유산으로의 전통공예: 일본 교토 니시진오리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제3호(2011), 19쪽, 29쪽.

25) 윤현호, 앞의 논문(2014), 1쪽.

26) 류춘규,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경북지역 증가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139쪽, 217쪽.

전통이 시간의 흐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현대화의 구체화된 실체로 다루고 있다.

한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전통에 주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해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발굴하여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두고 상징투쟁이라고 명명한다.²⁷⁾ 또한 광화문 건물에 투영된 정치권력의 의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복원을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패러다임으로 해석함으로써 전통의 가변적 속성과 전통으로서의 정당성 확보방식에 대해 논의한다.²⁸⁾ 이렇듯 전통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 일정한 양식을 갖추며 전승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사실상 전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화요소나 사회적 조건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통과 외부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현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전통가문이라는 사회공동체가 현대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에 입각한다면 전통은 현대화의 맥락에서 오히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표출된 현상을 통해 의미의 세계를 구축하는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토대를 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은 인과관계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연결망이나 생활양식을 배경으로 했을 때 더 잘 이루어진다.²⁹⁾ 한편 사례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주요

27) 박해광·송유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 『문화와 사회』 제3권(2007), 90쪽, 93쪽.

28) 하상복, 「광화문의 정치학: 예술과 권력의 재현」,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3호(2009).

표1-현장조사 일정

가문	일시	연구 참여자
강릉 선교장 가문	2016. 1. 14., 2016. 7. 30.	18대손
안동 농암종택 가문	2012. 4. 5., 2016. 1. 25., 2016. 8. 20.	17대 종손
안동 임청각 가문	2016. 1. 25., 2016. 8. 20.	20대손
안동 학봉종택 가문	2016. 3. 20.	15대 종손

정보원(informant)과 여타의 근거로부터 배치된 내러티브로 이야기가 구성되는데, 데이터에 밀착한 접근은 연구자의 정직성을 보장하므로 사례로부터 잘 구축된 이론은 객관적이며³⁰⁾,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phenomenon)은 곧 객관성을 의미한다.³¹⁾

전통가문 구성원들의 집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관념을 비롯하여 선대(先代)로부터 전승되어 학습된 인식, 여러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체득된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의 집에 대한 해석은 집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요소이자 그 정체성이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귀납적 추론의 논리에 입각해 현재시점에서 전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개별 가문들이 해석하는 전통의 본질을 포착하며 현대화의 근거를 추적함으로써 ‘전통의 현대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에 전통가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집에 상주하며 집을 관리하는 후손들로부터 집에 대한 해석을 듣고자 8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경험세계에 담긴 인식과 정서 등 주관적 정보를 수집하고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택·종택 명품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5일과 6일에 실시된 면담 내용, 관련 문헌 및 각종 영상물을 보강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인의 중가 연구 전문가로부터의 관련 지식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구술 내용의 신뢰도를 검토하는 방식의 다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9) 강신택,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조명문화사, 2013), 85쪽, 86쪽.

30) Kathleen Eisenhardt & Melissa E. Graebner, “Theory Building from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0(1)(2007), p. 25, p. 29.

31) Cloazzi(1978); 이남인, 앞의 책(2014).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한길사, 2014).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인 4개 전통가문은 강릉의 선교장, 안동의 농암종택, 임청각, 학봉종택으로, 모두 전통문화 체험장소로 개방되어 있다.³²⁾ 선교장(船橋莊)은 1760년 전후, 효령대군 11대손인 이내번(李乃蕃)에 의해 첫 건축을 들인 이래 300여 년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다. 이곳의 실질적 관리자인 선교장 주인은 1991년,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내려와 빈터로 남아 있던 옛집을 복원하기 시작했다.³³⁾ 지금은 한옥체험업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종가 연구자들은 그를 두고 대원군(大院君)과 같은 지위에서 가업을 이끌고 있으며, 선대(先代)의 자유롭고 실리적인 마인드와 무장(武將)의 기질이 배어 있어 이러한 성향이 선교장 운영에 반영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곳은 2002년부터 일반에게 개방하였는데, 200칸의 방 중 가솔과 문중 식구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60칸 방을 개방해 손님을 받기 때문에 제삿날에는 분리된 공간에서 가족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야간 경비원을 포함해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정내에 3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업화된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최근에는 강릉의 관동대학교 박물관과 오죽헌, 경기도 용인의 사저(私邸)에 산재한 집안 가구를 수리하여 집 인근에 신축한 가구박물관에 보관·전시하고 있다. 선교장 주인은 집을 지키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곧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면서 전통가문의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빙상경기장이 조성되는 강릉에서 한국 전통문화 전도사로서의 과업이 더욱 과중해졌다고 한다.

안동의 농암종택(龔巖宗宅)은 농암 이현보(龔巖 李賢輔, 1467-1555)를

32) 경상북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51개 고택의 연간 투숙객 수는 3만 1,584명으로(2015년 기준), 이 중 농암종택 투숙객 수는 2,303명, 임청각은 797명, 학봉종택은 356명이다. 한편 2011년에는 농암종택이 6,500만 원, 2012년에는 선교장 7,500만 원, 학봉종택은 6,950만 원을, 그리고 2014년에는 임청각이 6,275만 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체험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 바 있다.

33) 차장섭, 『선교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집 이야기』(열화당, 2011), 67쪽, 선교장에서 강릉시가 주관하는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다도, 예절, 목공예와 같은 체험활동과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체험시설 개·보수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생활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의 수혜를 받는 등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불천위(不遷位)로 하는 영천이씨 집안이다. 농암종택은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사방으로 분산되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에 걸쳐 가송리 일대로 이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집의 개방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금은 경북지역에서 대표적인 종가문화 체험공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현재 가통을 이어가고 있는 17대 종손은 2000년에 종손으로 취임하면서 유가적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편 임청각(臨淸閣)은 조선 시대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李溍)이 1519년에 세운 고성이씨 대종택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17대 종손 석주 이상룡(石洲 李相龍, 1858-1932)을 비롯하여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가문이다.³⁴⁾ 현재 석주의 증손자인 20대손이 집을 돌보는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불량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고, 1993년에 퇴직한 후 안동으로 내려와 집의 소유권 정상화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을 이어가는 인물로 평가받는다.³⁵⁾ 1990년에는 하얼빈 취원창에 모신 석주 선생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전하여 안장하는데 주력하였고 지금은 독립운동가 단체 지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봉종택(鶴峯宗宅)은 의성김씨 종가로, 퇴계의 직계제자인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1538-1593)을 불천위로 모시고 있다. 학봉종가 15대 종손은 정보통신업계의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해 ‘갓을 쓴 인터넷 사업가’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집안의 보종(保宗)문화를 의식해 은퇴 후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항상 하였고, 2010년 종손으로 취임하면서 집에 상주하며 가문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34) 석주는 만주로 망명한 후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학교를 건립해 신교육을 실시하고, 경학사를 만들었으며 한족회 회장, 서로군정서 독판,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였다. 1962년 석주 이상룡이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고, 동생인 이상동·이봉희가 각각 1968년과 1990년에 애족장과 독립장에 추서되었으며, 이봉희·이승화·이준형·이형국·이운형·이광민·이병화까지 후대에 걸쳐 총 9명이 독립유공자로서 서훈되었다. 그러나 임청각 후손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음에도 월북했다는 이유로 서훈에서 배제된 가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단을 한국 현대사 모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35) 주간한국, 「종가기행 28. 고성 이씨 임청각 이명」, 『주간한국』(2007).

IV.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1. 선교장 가문

1) 전통의 본질: 합리적 경영

선교장(船橋莊)은 '배다리집'이라는 의미로, 경포 호수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때 집 앞에까지 배를 타고 건너다닌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궐 밖의 제일 큰 집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집 이름의 '장(莊)'은 경제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주인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에 걸맞은 건축공간을 소유하였음을 보여준다.³⁶⁾ 따라서 선교장에서는 가장(家長) 대신 장원 전체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니는 대주(大主)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³⁷⁾

한편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양반가문의 분포가 희박한 지역으로, 강릉 김씨, 박씨, 최씨, 심씨 등 강릉의 토착세력은 선교장이 왕족의 후예이고, 학문 탐구보다는 경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 큰 재산을 축적하는 가운데 지역 농민들의 인심을 얻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고 한다.³⁸⁾ 반면 선교장 사람들은 토착민의 견제로 인해 지주 집안으로 낙인되어 근대기에 동학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여긴다. 최근 선교장 복원과정에 정부 재원이 투입되면서 사가(私家)에 대한 국고지원은 부당하다는 주위의 비판에 시달렸는데, 토착세력과의 이질성은 오랜 세월 동안 가문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요인이었다. 때문에 가족 내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족 간 결속을 도모하고, 양반으로서의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집안 경영을 실천하였다.³⁹⁾ 이를 두고 선교장을 귀(貴)보다는 부(富)에 치중된 가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의 실리적 성향은 지금의 가족경영에도 반영되어 기제사는 1년에 한 번만 치르고⁴⁰⁾, 시제사

36) 차장섭, 앞의 책, 79쪽.

37) 이희봉·김태식, 「강릉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을 통해 본 전통 주거공간의 재조명」, 『환경과학연구』 제8권(1997), 299쪽.

38) 차장섭, 앞의 책, 31쪽.

39) 위의 책, 137쪽.

40) 이희봉·김태식, 앞의 논문, 301쪽. 선교장의 경우, 누대에 걸쳐 벼슬을 한 선조들이 적기 때문에 유교적 시각에 입각해 지위를 서열화하기 어려운 종가이다. 하지만 문중

는 봄과 가을 두 차례만 지내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식구들의 이동상 불편함을 고려해 명절이 지난 후 한자리에 모이는 등 조상에 대한 의례규범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제사문화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2) 현대화 근거: 공적 장소로의 확장

가족주의는 문중을 중심으로 한 결속을 통해 배타적 집단화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됨으로써 접빈객 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관동8경의 중심지에 위치한 선교장의 경우, 타 지역의 과객들로부터 유입되는 학문적·문화적·정치적 정보가 선교장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밝게 함으로써 영동지방의 폐쇄적인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선교장은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조금씩 공간을 늘렸고, 만석(萬石)을 통해 쌓은 부에 기반하여 사교와 문화교류의 장소성을 조성하였다. 선교장의 접빈객 유풍(遺風)은 지금의 공공 개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손님맞이 모습은 전통의 현대화의 구체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시인 묵객들, 예술가,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관동8경을 한번 다녀가잖아요. 울진에서 고성까지 관동8경의 중심이 강릉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묵어가는 겁니다. 병 들면 묵어가지, 배고파도 묵어가지, 잠자리 없으면 묵어가지. 손님들 때문에 우리 집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만석을 했으니까 공짜로 먹었지요. (선교장 주인, 2015년 10월 1일)⁴¹⁾

유교적 도덕성은 양반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이웃을 구휼하는 일은 양반가의 도리이다. 백두대간으로 고립된 영동지방의 지리적 특성상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따랐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경제력을 갖춘 집안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선교장은 영동 일대에서 추수된 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고 강릉의 북쪽 지역인 북촌(주문진), 남쪽 지역인 남촌(목호)에 큰 창고를 두어 현지에서 보관하였다.⁴²⁾ 선교장 주인에 따르면 6개의 곡물창고를 마련하고 각각의

으로서의 경계를 가지고 종대(宗代)를 유지하였고, 부와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증가로 볼 수 있다.

41) KBS 6시내고향, 2015년 10월 1일.

창고에 집사를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육창제도라는 명목으로 운영되었다. 추수된 곡식을 각지에 분산한 것을 두고 자연재해나 정치적 사건으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풀이하기도 하지만⁴³⁾, 육창(六倉)은 곡물 보관뿐만 아니라 백성 구휼의 기능도 하였다. 특히 1853년부터 통천(通川) 군수를 지낸 14대손 이의범이 창고에 있는 수천 석의 쌀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강릉 이씨 가는 통천택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후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집안의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이렇듯 손님맞이 전통 그리고 주민과의 공생의 예는 선교장이 공적 장소로 확장되는 데 근거가 되었다.

영동지역은 조금 치외법권 지역이야. 중앙정부가 다스리기 어려워. 백두대간에 막혀 있으니가 질병이 발생해도 중앙정부에서 재난구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장에 맡기다시피 한 거야. 쌀도 비축하고, 우리 집에 약사들이 있어서 전염병이 돌면 다 여기서 (치료)했다고. (선교장 주인, 2016년 1월 14일)

2. 농암 가문

1) 전통의 본질: 선비적 안빈

농암 종가에서는 가문의 권위를 불천위 종가리는 데서 찾는다. 또한 불천위 조상을 ‘모범적인 국가관과 인생관을 가진 헌신적인 인물’로 정의하면서 집안 불천위를 가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핵심 요소로 인식한다. 이 집안의 불천위인 농암 이현보는 1512년, 아버이를 모시는데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의 ‘애일(愛日)’을 붙인 애일당(愛日堂)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지었고, 안동부사로 재직하던 1519년에는 안동부 내 80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이곳에서 화산양로연(花山養老宴)을 열어 장수를 축하했다. 또한 1533년에는 어린아이처럼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를 포함한 아홉 명의 노인 앞에서 춤을 춘 애일당 구로회(九老會)를

42)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삶과 삶의 공간 2』(돌베개, 2006), 240쪽. 이씨가의 (대택), 〈소택〉의 추수기(秋收記)는 강릉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북으로는 주문진 일대, 남으로는 묵호·삼척, 영서의 대화, 하진부에서의 농지경영을 기록한 것인데, 이 집안의 토지는 충청북도 충주와 음죽(陰竹) 등지에도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매우 넓었다. 서병패, 「19세기 강릉지방 토지수유에 대하여-선교장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46권(1996), 358쪽.

43) 서병패, 위의 논문; 김봉렬, 위의 책, 240쪽.

열었다.⁴⁴⁾ 이렇듯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주변 노인에게 대한 존경으로 확장되었고, 형제들도 잔치 때마다 모여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일상화하며 이를 가훈으로 삼았다고 한다.

한편 이현보는 89세까지 살았고, 그 아버지는 98세, 어머니는 85세, 조부는 84세, 증조부는 76세, 고조부는 84세까지 장수하였는데, 농암 종손은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을 장수 비결로 꼽는다.⁴⁵⁾ 이러한 맥락에 비춰볼 때 선비의 효행과 안빈낙도의 삶은 집의 전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농암 가문에서는 선비문화의 전형이라는 자부심을 '한국의 큰 집'이라는 용어로 상징화하며, 이웃과 지역 그리고 국가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에 가문의 비전을 둔다.

한국의 큰 집이어야 돼. 누구든지 큰 부담 없이 와서 간 뒤에 '한국에 이런 고택도 있구나'라는 좋은 감명을 갖고 가야 합니다. 전통이 세워지려면 모범적인 국가관과 모범적인 인생관을 지닌 분이 있어야만 후손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농암 가문 종손, 2016년 1월 25일)

2) 현대화 근거: 전통의 재현

종가의 개방은 안동 유림사회에서 큰 충격이었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한 이후 문중 구성원들이 집에 대한 평판에 더욱 주시함에 따라 종손에게는 오래된 전통을 현재의 필요에 입각해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숙고하여야 하는 과업이 부과되었다. 농암 종손은 옛것을 지키고 동시에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 선비의 사명이고, 종가는 그 선두에 있어야만 지손(支孫)을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종가의 품위를 지키는 가운데 변화의 흐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화두로 삼고 있다고 한다.

양반의 소굴인 안동은 거유(巨儒), 석학(碩學), 명관(名官)을 많이 배출한 한국 유림의 본고장⁴⁶⁾이기 때문에 친족의례가 갖는 명분적 가치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47개의 종가가 분포하는 안동에서 여러 문중은 가문을 상징하는 인물, 건축물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일례로 퇴계 문중의 퇴계 탄신 500주년 행사, 서애 종가의 서애 서거 400주년 행사,

44) 「종가19. 안동 농암 이현보 농암종택」, 《경북일보》, 2016년 6월 12일자.

45) 「600년 장수 대물림... 농암종가 밥상의 힘」, 《중앙일보》, 2012년 5월 11일자.

46) 한국지명사전(1974)(윤학준,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 I』, 길한사, 1994에서 재인용).

한산이씨 가의 대산 선생 탄생 300주년 행사 그리고 학봉종가의 학봉 선생 길사(吉事) 등 전통가문들이 기념행사를 앞다투어 추진하는 행태는 가문 간의 경쟁 양상을 반영하는데, 농암 종손은 이를 두고 불당이 같은 용광로라고 표현한다. 농암 가문에서는 2012년 애일당 건립 500주년 행사에서 농암 종손과 안동시장이 때때옷을 입고 안동시 80세 이상 노인 150명 앞에서 옛날의 기로연(耆老宴)을 재현함으로써 ‘한국의 큰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화하고 경내의 애일당(愛日堂)을 명소화함으로써 불천위 시조의 생애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삶의 행태를 현재 집의 이미지로 투영하였다.

한편 가옥이 입지한 자연풍광과 집안 선조들의 장수 선례를 입혀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조식은 손님들에 의해 장수밥상이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농암종택에서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전통문화 체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손은 손님들로 하여금 집안사람들과의 상호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장수밥상을 함께한다. 이렇듯 농암종가에서는 과거를 재현하거나 선례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화는 결국 문화를 전승하는 현실적인 과정으로 풀이된다.

농암 선생 직계자손들이 전국에 3만 명입니다. 전부 종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99가지를 잘 해도 손님들이 하나를 나쁘게 평하면 집안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또 종가가 개방해서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한다는 것은 자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종가가 왜 숙박업을 하나고 따지는 거죠. (농암 가문 종손, 2012년 4월 5일)

3. 임청각 가문

1) 전통의 본질: 격발된 전통

국권상실 직후인 1911년 1월 5일, 석주 이상룡은 “나라도 없는데 신주(神主)만을 지킬 수는 없다”면서 50여 명의 가솔을 이끌고 만주로 갔다.⁴⁷⁾ 더군다나 일제는 중앙선 개통을 명분으로 임청각의 행랑채

47) 신주는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인식되는 나무로 만든 패로, 봉제사를 종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바라보는 한국 종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다. 신주는 사후 시신에서부터 신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일련의 의식을 거치면서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50여 칸과 부속건물을 철거하였으며 그 앞에 철길을 내어 경내를 가로지르게 하였다.⁴⁸⁾ 제례(祭禮)는 종가문화의 유무형적 증거이자 양반 가문의 기본적인 구실인데, 임청각은 500년 대가(大家) 중 신주가 없는 사당을 두고 있는 유일한 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종가의 유교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국망(國亡)은 유교적 전통과는 다른 가문의 정체성을 제고하게끔 하는 격발기제가 됨으로써 임청각은 유교적 조건에 매이지 않고 집 고유의 전통성을 형성해 이어갔다.⁴⁹⁾ 사실상 임청각 가옥은 보물 182호인 국가문화재이자 현충시설이고 석주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원수였으며 1895년부터 1945년 해방 시기까지 대를 이어서 선조가 모두 독립운동을 한 가문이라는 점은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한다. 즉, 국망의 상황 아래에서 민족을 최상의 가치에 두었던 집안의 대응행태는 전통의 기원을 새롭게 쓰는 격발기제로 작용하며,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긍지는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가는 데 토대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집은 근대기에 끊임없는 변용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갔던 안동지역 유림사회의 대표적인 문중으로⁵⁰⁾, 만주 망명은 임청각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가치를 넘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도였다고 해석한다.

(만주로 이전한 지) 십몇 년이 지나서 석주 선생의 손자가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이 모여서 손자를 대표로 뽑자 그가 깜짝 놀라서 '부모도 조부모도 노인이다. 나는 형제도 없고 단신인데 내가 어떻게 독립군 대표가 되겠나.' 바깥이 시끄러우니까 석주 선생이 왜 그러냐고 물어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손자를 다그쳤어요. '나라 찾겠다는 사람이 조부모 걱정해서 되겠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도 언제 나라를 찾을는지 모르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이 얘기를 들으니 내가 헛살았다는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명가의 고문서: 안동 고성이씨 · 의정부 반남 박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23쪽.

49) 신주를 묻고 만주로 떠났지만, 유교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한 가족의 노력은 후대로 이어지면서 지속되었다. 1911년 만주 망명 때 석주는 조카 이형국을 종손 대행으로 명하고 떠났고, 6·25전쟁이 발생하자 석주의 아들 이병화는 주손(主孫)이 고향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차남을 안동으로 내려보냈다(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정우사, 2008, 210-211쪽). 임청각 후손 역시 출세나 여타의 사욕을 자제하고 선비로서의 품위를 지킨 조상들의 행적을 가문의 자랑으로 삼는다.

50) 강윤정, 「근대기 고성이씨 문중의 정치적 동향과 사회경제적 변화」, 『안동학연구』 제6권(2007), 197쪽, 216쪽.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집은 집 지키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뭇땅 가서 희생을 했습니다. (임청각 후손, 2016년 1월 25일)

2) 현대화 근거: 가족공동체 이익의 범사회적 확대

만주에서의 삶은 국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3년 4월⁵¹⁾, 석주의 아들 이준형이 고향으로 돌아와 임청각 건물과 토지를 팔자 문중이 모금을 펴 매각 2개월 후에 다시 사들였지만, 일제가 호적제를 시행하자 일제 제도 편입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임청각 후손은 집이 석주의 직계가 아닌 다른 파(派) 주손 4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2000년 초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유권이 여러 대에 걸쳐 상속돼 68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에 소유권 확인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건축물로 지어지지 않는 한登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⁵²⁾

고성이씨 가문은 자신이 속한 종족의 운명과 이익을 국가와 민족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는데⁵³⁾, 달리 말하자면 가족공동체의 이익을 범사회적으로 확장하려는 전통가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일제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된 임청각 전적은 395종 1,309책에 달하고, 2004년에는 장서각(藏書閣)에 고문서, 고서, 유물 등 일괄자료 4,966점을 기탁하였으며, 2002년에는 임청각 건물과 임야 1만 2,000평의 국가 헌납을 시도한 바 있다. 사실상 임청각 건물은 외세강점기에 독립자금 조성을 위한 매매의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국가에 귀속하여 공공자산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전통 잇기의 수단이 된 것이다.⁵⁴⁾ 또한 경내에 망국협정문(亡國協定文), 집 소유권 관련 신문기사, 석주 관련 자료 등을 게시하여 손님이

51) 임청각 매매증서에는 석주의 아들 이준형이 아버지 초명인 이상희(李象羲)라는 이름으로 가옥과 토지를 팔며 작성한 일자가 1913년 6월 21일이며, 안동에 사는 이종하(李鍾夏)를 비롯한 3인이 9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앞의 책, 123쪽. 이렇게 자료마다 기록이 다른 것에 대해 후손은 정리과정에서 매매계약일이 6월로 왜곡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실제 계약일은 4월 1일이고, 이것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52) 「임청각 '비운의 80년' 문서로 드러난 '애국」, 《매일신문》, 2015년 12월 16일자.

53) 강윤정, 앞의 논문, 222쪽.

54) 임청각 후손은 유족을 대표해 임청각 건물을 국가에 헌납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건물登記 미비로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해 국가 귀속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전통의 현대화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곳 후손들은 상류층 종손으로서 경제적 풍요와 권위를 보장받기보다는 여러 대에 걸쳐 독립이라는 목표에 실천성을 부여한 선조들의 행적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임청각 사람들은 새 전통이 격발되었던 시기부터 그 전통에 얽힌 여러 맥락을 밝히고 알리며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현대화를 시도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집은 끊임없는 투쟁을 위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4. 학봉 가문

1) 전통의 본질: 문중의 집

한 지역의 명성은 그 지역의 주민들보다 외부집단의 선전에 훨씬 크게 의존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는데⁵⁵⁾,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가문의 전통잇기 주체는 종택의 물리적 공간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중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가의 공공개방도 집을 개인집이 아닌 '문중의 집'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봉가문 지손들의 종가에 대한 보종의식은 매우 강해서 문중구성원을 결속하고 가족 간에 가풍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며, 가문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데 종손을 중심으로 한 문중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일례로 고시 합격자, 박사학위자 그리고 국가고위직에 오른 후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새 회원이 입회하면 불천위 제사에 앞서 사당에서 고유제를 올리는 등⁵⁶⁾ 조직화된 방식으로 가문을 현창한다.

한편 종손은 제사권을 지닌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영남 벼슬 중에 종손 벼슬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지만⁵⁷⁾, 전통가문 종손에게는 문중의 기대와 제재가 혼재하므로 명예를 누림과 동시에 상당히 외롭다고 한다.⁵⁸⁾ 사실상 유교적 의미에서 집은 개인에 우선하고 가족 이전에 전제된

55) Yi-Fu Tuan,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이-푸 투안 저, 심승희·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77쪽).

56) 중앙시사매거진, 「안동 선비정신의 미학③ 학봉 김성일 13대 종손 독립지사 김용환」(2016).

57) 윤학준, 앞의 책, 84쪽, 149쪽.

독자적 조직이며, 종손은 문중구성원의 도움 없이 설 수 없으므로 학봉 종손은 제사의식에서 종손에게 주어지는 우선권을 제외하고는 문중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한다.

해가 빠질 때쯤 이제 손님이 안 오겠다 싶어 반바지 입고 나가면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떤 종손들은 여름에 풀 뽑는다고 작업복 입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여기 종손 안 계십니까?’라고 물으면 ‘종손 오늘 출타했습니다’라고 그런대요. 불편하지만 종가로서, 또 문중을 위해 우리 집은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집은 개인집이 아니니까 닫을 수가 없는 거죠. (학봉 가문 종손, 2016년 3월 20일).

2) 현대화 근거: 상징의 지속적 생산

조상에 대한 현창(顯彰)은 제사를 통해 구체화되며, 이러한 제의를 통해 양반 됨이 돋보인다. 유교의 조상 제사는 제사를 구성하는 제요소를 둘러싼 신분, 사회적 질서체계와 의식의 적합성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지만⁵⁹⁾, 학봉 종가에서는 오늘날까지 제사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형식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유일한 종가임을 자부한다. 한편 종가들은 종중과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의 지원으로 기념관을 지어 가래 유물과 기념물을 보존하는데, 이 집안에서도 학봉기념관을 조성해 가전유물(家傳遺物)을 보관하고 있으며, 1974년에는 학봉선생기념사업회를 발족해 불천위 조상에 대한 향염의식을 학술활동 지원과 상징물 제작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학통상 퇴계의 정맥을 이은 곳으로서 집적된 많은 고문서를 일괄유물로 묶어 56종 261점을 보물 제905호, 17종 242점을 보물 제906호로 지정하였고 집 안의 운장각(雲章閣)에 보관하고 있다.⁶⁰⁾ 이렇듯 학봉 가문에서는 다른 가문과 견주어서 결코 뒤처짐 없는 집의 격(格)을 드러내는 가운데 ‘종가 중 으뜸’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58) 중앙시사매거진, 앞의 글.

59) 류춘규, 앞의 논문, 36쪽.

60)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말하지 않은 것과의 대화』(창작과비평사, 1997), 109쪽. 운장각은 학봉이 남긴 서적, 유물, 친필기록 제초고(諸草稿) 및 선조 전래의 전적과 문서, 후손들의 유품 500여 점을 보존하기 위해 1987년에 건립되었다. 운장각건립추진위원회, 『운장각』(운장각건립추진위원회, 1987a), 37쪽.

(중손으로서의) 자긍심보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지죠. 문중 사람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은 해도 되도 중손은 하면 안 되고, 자기네들은 못하지만 중손은 해야 되고. 그만큼 중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중에서는 학봉중가 지손들이 단결하여 조상 향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학봉 가문 중손, 2016년 3월 20일)

V. 전통의 현대화 논의

1. 전통의 현대화 근거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은 그 집의 전통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전통가문 사례에서 선교장의 경우, 집의 과업(家業), 농암중가는 집의 인물(家人), 임청각은 집의 내력(家歷), 학봉중가에서는 가족이 공유하는 의식(家風)이 전통의 실체를 구성하며, 이것이 현대화의 단서가 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전통가문들은 보편적인 시대적 기준과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하에서 형성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며, 정체성을 함축하는 상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한다.

선교장은 관동8경의 관문이라는 입지에서 접빈하였고, 손님맞이 전통을 폐쇄적인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즉, 과객을 통해 유입된 여러 지역의 정보와 세상의 흐름에 대한 깨우침으로 실리적인 가문 경영을 위한 지식기반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지식이 토착 세력의 견제와 근대기의 격변 속에서 당면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한편 육창제도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부를 구할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사례에 기대어 '동천택' 이미지를 가문의 공적 역할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삼고, 집을 개인집이 아닌 공적 장소로 해석하면서 지역과 국가사회에서 가문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한다.

농암 가문에서는 전통으로서의 권위를 불천위 조상에 두면서 그 인물의 인생관과 행적을 전통의 핵심 요소로 바라본다. 또한 옛 전통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가의 역할이자 선비의 사명이므로 전통에 담긴 본질적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함으로써 현대화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손님들로 하여금 가풍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가문에 착근된 선비적 안빈(安

표2-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전통가문	전통의 기원	전통의 본질	상징(정체성)	현대화의 근거
선교장 가문	가업(家業)	합리적 경영	관동8경의 관문 / 통천댁	공적 장소로의 확장
농암 가문	가인(家人)	선비적 안빈	한국의 큰 집	전통의 재현
임청각 가문	가력(家歷)	격발된 전통	끊임없는 투쟁	가족공동체 이익의 범사회적 확대
학봉 가문	가풍(家風)	문중의 집	종가 중 으뜸	상징의 지속적 생산

貧)을 익히도록 이끄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농암 가문은 ‘한국의 큰 집’으로서 사회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임청각 가문은 여타의 전통가문과는 결이 매우 다르다. 이곳 사람들의 집에 대한 해석은 17대 종손인 석주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발된 부조리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주력한다. 임청각의 상징은 석주로부터 이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곳의 전통은 혈통상의 기원이 아니라 국망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맥락에서 격발된 저항의 역사이다. 임청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통은 유교사회의 양반집에서 가문을 현창하고 조상을 향염하는 데 몰두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곳에서는 집의 유산과 유물을 가문과 국가를 매개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가산(家産)의 공공자산화를 꾀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에 비취볼 때 이들에게 전통의 현대화는 가족공동체 이익의 범사회적 확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청각 사례는 전통의 본질적 요소가 단지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전통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주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의 현대화는 원형성의 신화(myth of prototypicality)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학봉 가문은 조선 유학의 정맥을 이은 집이라는 자부심에 기반하여 ‘종가 중 으뜸’이라는 의식으로 그들의 전통을 규정한다. 또한 문중구성원이 우수한 가문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보종(補宗) 의식이 강화되고 이것이 상징의 생산을 촉발하며, 가족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문중을 우선시하는 가풍이 촉발된다. 때문에 학봉 사람들에게 집은 곧 ‘문중의 집’이며, 집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징물을 생산한다.

2. 전통의 현대화 개념

전통은 임의로 변하는 유행(fashion)과는 달리 최소 3세대 이상 지속되고⁶¹⁾, 관습(custom)과는 달리 도덕적·감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구속력을 지니며⁶²⁾ 지지자들(adherents)에 의해 가치가 부여된다.⁶³⁾ 때문에 전통을 특정 사회구조에서의 신념(beliefs)이라고 정의하며⁶⁴⁾ 현재를 과거와 엮는 끊임없는 해석에 의해 완전성(integrity)이 확립되는 개념으로서 전통을 논의한다.⁶⁵⁾ 일반적으로 전통은 변화를 전제하고 지속적이며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자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다고 그 속성을 규정한다.⁶⁶⁾ 그런데 전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유한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요구되므로 전통은 가치 전제적이다. 때문에 전통은 정책이나 인위적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사회와 이념의 변천에 따라 형성되고, 집단구성원들이 자기 집단의 고유한 것으로 여기는 주관적 의식에 기반하며⁶⁷⁾ 공동체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은 단순히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방식이나 행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timeness)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valueness)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전통은 가치 함축적이므로 '전통의 현대화'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집합적 해석과정이다.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은 곧 그 집의 정체성이며, 이때 정체성은

61) Edward A. Shils, *Tradition*(Faber & Faber, 1981a), p. 15; Richard Handler & Jocelyn Linnekin, 앞의 책, p. 274; Struan Jacob, "Edward Shils Theory of Tradition,"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37(2)(2007), p. 141.

62) Ulrich Beck & Anthony Giddens, 앞의 책, p. 63. 관습(custom)은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나 행위방식, 인습(convention)은 널리 수용되어 따르는 관습과 행동방식, 그리고 관례(routine)는 특정 질서하에서의 규칙적인 행동방식 또는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Merriam-Webster(검색어: custom, convention, routine). 한편 습관(habit)은 관례화(routinization)의 순전히 개인적인 행태를 가진다(Ulrich Beck & Anthony Giddens, 앞의 책, p. 101). 이렇듯 전통의 유사개념에는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

63) Struan Jacob, 앞의 논문, p. 158.

64) Edward A. Shils, "Tradition," *Society fo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3(2)(1981b), p. 126.

65) Ulrich Beck & Anthony Giddens, 앞의 책, p. 64.

66) 김중서, 앞의 논문, 9-11쪽.

67)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문화과학지성사, 1996), 251쪽, 304쪽.

개인과 집단이 속한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상징적 패턴이 전혀 없는 전통은 없다는 견해⁶⁸⁾와 같이 각각의 전통가문이 인식하는 집의 정체성은 상징으로 표상화되며, 상징은 전통의 본질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종가 사람들의 상징적 의미세계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과는 무척 다르다고 하지만⁶⁹⁾, 한국의 전통가문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의 상징을 현대화의 준거로 삼는다. 또한 정체성은 타자에 대한 체험과 그로 인한 능동적인 변화과정 없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⁷⁰⁾ 상징에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즉, 전통가문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집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그것의 뿌리를 전통의 본질에서 찾고 있으며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해 상징화 전략을 피하는 가운데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통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정당성은 해석자의 주관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지만⁷¹⁾, 해석을 통해 전통에 의미가 더해지고, 전통성(traditionality)은 공식·비공식 영역의 개인들 간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통은 규범적 속성을 지니며, 현대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⁷²⁾

사실상 현대화의 근거는 현재 삶의 주인공들의 전통에 대한 해석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대에서 전통이라 불리는 것들은 지난 시대 전통의 본질(essence)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현대화란 현대적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통을 재창조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의 본질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통의 본질을 상징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한국 전통가문의 '전통의 현대화'는 결국 전통의 기원에 토대를 두는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의 정체성을 끌어내며 현재의 시점과 주어진 조건하에서 전통의 본질을 상징화하는 과정으로, 이들에게 현대화란 전통의 재현이나 변용 또는 활용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해석을 조율해나가는 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므로

68) Edward A. Shils, 앞의 책(1981a), p. 31, pp. 96-97.

69)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iii쪽.

70) 전진성, 앞의 책, 72쪽.

71) Gadamer, 기타 겐·노에 게이이치·무라타 준이치·와시다 기요카즈 저, 이신철 역, 앞의 책, 326쪽.

72) 실즈(Shils)는 전통의 규범적 측면을 전통이 개인의 행동 조건을 설정하고, 수단(resources)을 결정하며 그 개인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전통의 영향범위 안에 있는 개인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Edward A. Shils, 앞의 책(1981a), p.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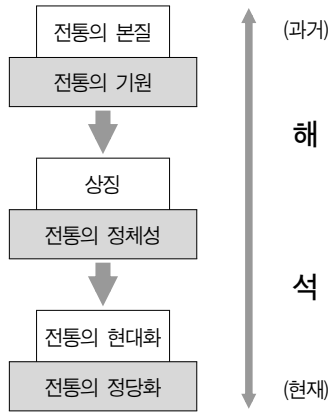


그림1-전통의 현대화 구조

집을 개방하여 대중과 상호작용하고, 문중이라는 집단이 집을 매개로 하여 공적 영역으로 그 역할범위를 확대하는 과정 역시 집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상징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춰볼 때 전통에는 그 전통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의 가치가 전제(value-premised) 되므로 전통은 규범성을 지니고, 전통의 현대화는 전통의 규범적 속성이 지금 시대에서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VI. 분석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통이 현대화되는 맥락을 발견하고, 현대화의 근거를 발견하며 그것으로부터 ‘전통의 현대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전통이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그 시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통의 속성을 논의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분절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양자를 비교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각각의 개념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 유산이 현존하는 경우, 그 현상 자체를 현대화의 근거로 다룸으로써 ‘전통의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전통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가문 사람들의 인식세계에 기대어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종가 중심의 가족형태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보편적인 결과로 수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종가는 역사적 시간성을 지니는 사회집단으로서 현존하고 가정은 여전히 문화의 보존과 전승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가(家)'는 가족이나 가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여러 사회집단을 포괄하는 삶의 중심개념이라는 점⁷³⁾에서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은 전통의 실체와 현대화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변화성, 지속성, 공유성 등 전통 자체의 현상에 주목해 전통의 속성을 제시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에 내재된 규범적 특질을 전통의 속성 중 하나로 다루었다. 전통은 해석자의 의미 부여에 따라 전통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때 전통은 홉스봄(Hobsbawm, Eric J.)이 개념화한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조건과 특수한 상황 맥락에 따라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전통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예컨대 임청각 사례에서의 전통(격발된 전통)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지만, 그 집의 현대화 양상은 어느 가문 못지않게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 비춰볼 때 결국 전통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뒷받침되어야만 현대화의 실체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이 규범성을 지닌다면 향후 전통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전통가문의 경우, 문중집단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종손과 같은 전통 담당자의 지향성과 역할이 현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통 담당자의 전통에 대한 해석과 대응행태에 대한 탐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전통이라는 용어에 담긴 가치 전제성을 간과하면 전통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진척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탐구한 '전통의 현대화' 개념을 확장하여 토착화 또는 한국화 담론에서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성(Koreaness)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끌어냄으로써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 생산과 정책개발 논의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73) 최봉영, 앞의 논문(1992), 4쪽.

참 고 문 헌

1. 논저

- 강신택,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 조명문화사, 2013.
-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강윤정, 「근대기 고성이씨 문중의 정치적 동향과 사회경제적 변화」. 『안동학연구』 6권, 2007, 195-222쪽.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지성사, 1996.
- 권승인, 「일본의 전통, 교토의 섬유산업을 뒷받침해 온 제일조선인」. 『사회와역사』 91권, 2011, 325-372쪽.
- 기다 겐·노에 게이이치·무라타 준이치·와시다 기요카즈 저, 이신철 역, 『현상학 사전』. 도서출판비, 2011.
-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삶과 삶의 공간 2』. 돌베개, 2006.
- 김종서, 「전통사상의 개념」. 김종서 외,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류정아,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성'의 의미: 남프랑스 한 마을의 전통축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8권, 1995, 79-99쪽.
- 류준규, 『유교식 제사의 전승과 제문 연구-경북지역 종가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문옥표, 「문화유산으로의 전통공예: 일본 교토 니시진오리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44권 3호, 2011, 3-35쪽.
- 박해광·송유미,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 『문화와 사회』 제3권, 2007, 85-122쪽.
- 서병패, 「19세기 강릉지방 토지수유에 대하여-선교장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6권, 1996, 351-380쪽.
- 운장각건립추진위원회, 『운장각』. 운장각건립추진위원회, 1987a.
- _____, 『학봉선생의 생애와 사상』. 운장각건립추진위원회, 1987b.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말하지 않은 것과의 대화』. 창작과비평사, 1997.
- 윤학준,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 I』. 길안사, 1994.
- 윤현호,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으로 인한 양동마을 전통의 재구성」. 『관광연구』 29권 2호, 2014, 1-23쪽.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한길사, 2014.
- 이성원,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푸른역사, 2008.
- 이순형, 『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충양, 「1980년대 중국에서의 전통문화와 현대화 논쟁」. 『중어중문학』 29권, 2001, 577-600쪽.
- 이희봉, 「상류 전통주거 강릉 선교장의 해석」. 『건축역사연구』 8권 4호, 1999,

39-62쪽.

- 이희봉 · 김태식, 「강릉 선교장 가족성원의 역할을 통해 본 전통 주거공간의 재조명」.
『환경과학연구』 8권, 1997, 293-311쪽.
- 전병재, 「한국사회에서의 전통과 현대」. 『한국사회』 1권, 1998, 9-25쪽.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 주간한국, 「종가기행 28. 고성 이씨 임청각 이명」. 『주간한국』, 2007.
- 중앙시사매거진, 「안동 선비정신의 미학③ 학봉 김성일 13대 종손 독립지사 김용환」.
『중앙시사매거진』 6호, 2016년 5월 17일.
- 차장섭, 『선교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집 이야기』. 열화당, 2011.
- 최봉영, 『한국인의 가(家)의 현실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1992.
- 하상복, 「광화문의 정치학: 예술과 권력의 재현」. 『한국정치학회보』 43권 3호,
2009, 77-98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명가의 고문서: 안동 고성이씨 · 의정부
반남박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여사 회고록』. 정우사, 2008.

- Beck, Ulrich & Giddens, Anthony.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Bendix, Reinhard,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9(3), 1967, pp. 292-346.
- Eisenhardt, Kathleen M. & Graebner, Melissa E., "Theory Building from Ca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50(1), 2007, pp. 25-32.
- Giddens, Anthony.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Routledge, 2003(앤서니 기든스 저, 박찬욱 역. 『질주
하는 세계』. 생각의나무, 2000).
- Handler, Richard & Linnekin, Jocelyn, "Tradition, Genuine or Spuriou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97(385), 1984, pp. 273-290.
- Hobsbawm, Eric J.,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1992(에
릭 홉스봄 · 사라 모건 저, 박지향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Jacob, Struan, "Edward Shils Theory of Tradition."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37(2), 2007, pp. 139-162.
- Lutz, J. G. & El-Shakhs, S., *Tradition and Modernity: The Role of Traditionalism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Shils, Edward A. *Tradition*. London: Faber & Faber, 1981a.
_____, "Tradition." *Society for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3(2), 1981b, pp. 122-159.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이-푸 투안 저, 심승희·구동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2. 신문

《경북일보》, 「중가19. 안동 농암 이현보 농암종택」. 2016년 6월 12일자.
《매일신문》, 「임청각 '비운의 80년' 문서로 드러난 '애국'」. 2015년 12월 16일자.
《중앙일보》, 「600년 장수 대물림 ... 농암중가 밭상의 힘」. 2012년 5월 11일자.

3.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검색어: 전통).
메리엄 웹스터 사전, <http://learnersdictionary.com/definition>(검색어: tradition, custom, convention, routine).
오래된 약속 12편. 독립투쟁의 산실 임청각과 석주 이상룡(2014년 12월 25일 방영), http://andongmbc.co.kr/adboard/index.php?doc=program/vod2/HDvodView.php&ca_id=1101i0.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http://www.apkch.org/profile>.

4. 기타 자료

EBS 다큐멘터리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제6부. 서간도 바람 부는 임청각: 신흥무관학교 역사와 그 민족사적 의의/안동지역 보수유림의 혁신적 성향 심층 분석.
축제(祝祭). 대구MBC 창사47주년 특집다큐멘터리.
KBS 6시내고향, 2015년 10월 1일.

국 문 초 록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timeness)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valueness)을 동시에 함축한다. 한국의 종가(宗家)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적실하게 반영하는 유산으로서 현재까지 문중(門中)을 통해 삶의 양식의 한 축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화의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은 어떻게 현대화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전통이 현대화되는 맥락을 포착하고, 현대화의 근거를 탐색함으로써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연구자는 '집'을 물적 환경(house)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가문(family) 단위로 정의하고, 종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갖추며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장소로 개방된 곳이라는 조건에 따라 강원도 선교장(船橋莊), 안동의 농암종택(農巖宗宅), 학봉종택(鶴峯宗宅), 임청각(臨淸閣) 가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곳의 실질적인 관리인으로서 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후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토대를 둔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가문들은 보편적인 시대적 기준과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하에서 고유한 집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은 곧 그 집의 정체성(identity)으로, 전통가문 사람들은 정체성의 뿌리를 전통의 본질에서 찾고 있다. 한편 정체성은 상징으로 표상화되는데,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에 현재적 해석이 가해지므로 상징은 전통의 본질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듯 전통에는 그 전통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의 가치가 전제되므로 전통은 규범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통가문의 '전통의 현대화'는 결국 전통의 기원에 토대를 두는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의 정체성을 끌어내며 전통의 본질을 상징화하는 과정으로, 이들에게 현대화란 전통의 재현이나 변용 또는 활용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해석을 조율해나가는 활동이다. 또한 현대화란 현대적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통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전통의 본질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통의 본질을 상징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전통의 현대화'는 현재 시점에서 전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집합적 해석과정으로, 전통의 규범적 속성이 지금 시대에서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전통에 내재된 규범적 특질을 전통의 속성 중 하나로 다루었고, 전통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뒷받침되어야만 현대화의 실체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전통의 현대화' 개념을 통해 한국화 담론에서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성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끌어냄으로써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생산과 정책개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6. 9. 19.

심사일 2016. 11. 7.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전통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Tradition), 한국성(Koreaness), 전통가문(Traditional Family), 종가(Korean Head Family)

Abstracts

Conceptualiz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a House by the Korean Traditional Families
Kim, Kyoung-eun

Tradition implies not only timeness which has been continued from the past but also valueness as the present meaning. Korean head family is an appropriate subject to analyze modernization as it has maintained one of the life styles from the past until modern tim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modernization of tradition” through capturing the context for modernization of tradition, and investigating the grounds of modernization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is tradition modernized?” This study approaches “house” not as a physical environment but as a family, and selects four Korean traditional houses—Seongyojang, Nongam Traditional House, Hakbong Traditional House, and Imcheonggak in Andong—which have a social standing as the Korean head family and are opened to the public for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s. It tries to collect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among descendants of those houses and a field study. The data is then analyze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interpretative paradigm.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each traditional house has a unique identity according to universal criteria of the times and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is that “house” is the identity of their family, and they regard the root of identity as the essence of tradition, investing tradition with the present meaning. Thus, tradition implies normativity since it is premised on the value of the social groups sharing that tradition. In this context, “modernization of tradition” means not only a collective process for interpretation as of present but also justification of that normativity in the present ag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als with normativity as one of the attributes of tradition, and proposes that consideration on the essence of tradition is critical to figure out modernization. The concept of “modernization of tradition” can provide clues about Korean things and Koreanes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field of Koreanization discourse.

